

귀국보고서

파견대학	쿠마모토 대학교
파견기간	18. 04. 01. ~ 19. 02. 28.
프로그램	1년 (정규)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 보험은 1년치 외국 장기체류 보험(유학생 보험)을 10만원선에서 찾아 들었고 일본에 가서 주소지 등록을 하며 자동적으로 일본 국민건강보험에 등록되었습니다. 비자는 미리 서류를 잘 준비한 뒤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가서 발급받았습니다. 항공권은 미리 예매를 해서 저렴한 가격인 5만원에 쿠마모토 공항에 도착하는 표를 끊었습니다. 추후에 수하물을 추가하여 9만원에 결제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서울과 대구에서 쿠마모토에 갈 수 있고, 항공사는 티웨이와 에어서울이 있습니다.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 바로 쓰지 않을 물건들은 우체국에서 국제 택배로 일본 기숙사에 미리 보내 놓고 나머지는 커다란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대체로 기숙사에 가면 많은 물건들은 직,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옷 정도만 잘 챙겨가면 됩니다. 쿠마모토의 기온은 한국보다 10도 정도 높습니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상당히 많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잘 지내게 되었는데 1년 동안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다양한 언어로 교류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어로 소통하지만 유학생들과는 영어도 자주 사용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알바를 하고 일을 하면서 일본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어 실력이 능숙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다소 소극적이고 부끄러워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가가기 힘들 수 있지만 친해지고 나면 한국과 똑같이 서로 잘 챙겨 주게 됩니다. 사람들도 시스템도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느립니다. 행정 업무나 여러 일의 처리도 느리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최저시급이 8350원인데 쿠마모토의 최저시급이 7800원, 도쿄가 9000원 정도 합니다. 잡화점과 노래방 두 곳에서 일했는데 각각 시급 8200원, 8900원을 받았습니다. 쿠마모토의 물가는 청주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역이나 교통비는 굉장히 비쌉니다.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졸업하기 전에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해 보고 싶었는데 조금씩 할 수 있는 언어가 영어와 일본어라, 영미권과 일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미권은 너무 비싸고 멀어서 일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쿄는 방사능이 걱정돼 따듯하고 날씨도 좋을 것 같은 큐슈의 쿠마모토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2. 공항 - 학교

후쿠오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쿠마모토 공항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쿠마모토 공항에 내리면 JR기차 히고오즈역으로 30분마다 무료 셔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히고오즈역에서 다쓰다구치역으로 가 내린 뒤 10분을 걸어가면 기숙사가 나옵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일본어 수업, 영어 수업을 다 들을 수 있고 일반 학생들이 듣는 학부 수업도 들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력과 언어 능력을 고려해 잘 선택해서 들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강신청을 할 때도 학교로 가서 게시판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물론 유학생 전용 프로그램이 적혀 있는 책자를 주므로 그 책 내에서 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공 4학점, 학기 도합 10학점 이상, 일주일에 7개 이상의 수업을 편성해야 하므로 여러모로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일본어로 하는 수업이 많아 상당히 불안할 수 있지만, 유학생이라고 말을 해 두면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들어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이랑은 좀 다르게 일단 수업을 짚어놓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있는 수업을 들어가 보고 마음에 들면 교수한테 도장을 받고 수업에 참석하는 형식이라 우선 발로 뛰어야 합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쉐어룸 등)

자취하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홈스테이, 하숙, 쉐어룸에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일본 가정집에 초대받아 같이 식사하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쿠마모토 대학교 기숙사는 방 종류가 많습니다. 1인실, 2인실, 4인실, 부부실, 가족실이 있습니다. a,b,c,d,e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동에 따라 공과금을 직접 내는 방과 그렇지 않은 방이 있습니다. 보통 한달 방세는 공과금까지 포함해서 4인실은 15만원 1인실은 22만원 정도 나옵니다. 방 크기는 일반 한국 원룸 정도 되며 쓰기에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나-5. 교내·외 활동

일본 학생들은 대외활동, 공부, 취업 준비를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주로 하는 건 동아리 활동입니다. 부활동, 서클활동이라고도 하는데 거의 모든 학생이 1개~3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c3라는 외국인, 유학생, 국제교류 관련 부활동과 차도, 베드민턴 부활동을 했습니다. 전부 다 재미있고 얻는 것도 많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아 참여하는 걸 추천합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교통비가 비싼데 교통편도 불편합니다. 거의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게 됩니다. 보통 쇼핑을 하거나 놀러 갈 때 중심가(마치)에 가는데 기숙사에서 자전거를 타고 25분, 버스를 타고 15분(3000원)이 걸립니다. 또한 기숙사 주변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당도 편의시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서 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후쿠오카현, 쿠마모토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가고시마현, 미야자키현, 오이타현, 고베현, 교토부, 오사카부 등을 여행했습니다. 모든 곳이 다 저마다의 매력이 있어 좋았고 멋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닐 것을 추천합니다. 교통비가 상당히 비싸서 필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 가서 렌트해서 친구들과 이곳저곳 여행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잘 준비해서 열린 마음으로 유학을 가면 얻을 것도 많고 좋은 경험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의 많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밝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는 가서도 더 능숙해질 수 있지만 일상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꼭 공부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되면 여러 기회가 더 열립니다.

뭐든지 참여하고 우선 해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사진자료

